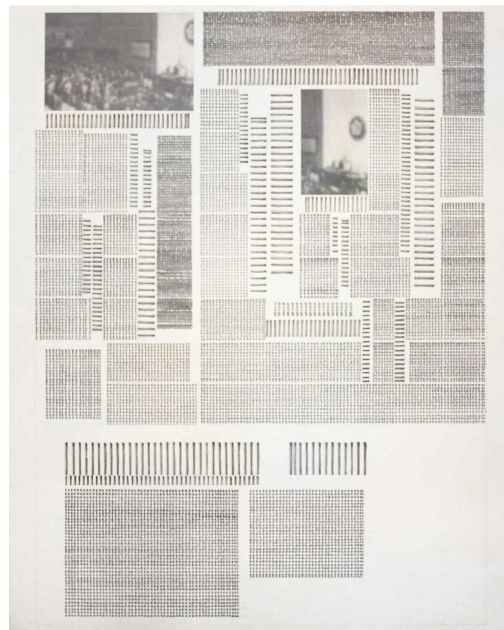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임 장 순

임장순의 한 화폭 안에는 서로의 시제를 모방하는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시제에서 과거의 매체를 통해 생성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들을 작은 패턴으로 그려 배치한 이미지와 과거의 시제에서 발생한 사건을 현재의 매체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이다. 이미지와 표현 매체의 상반된 시간성은 묘한 정적인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들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각각의 외곽선을 형성하여 화폭 안에 서로를 해치지 않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공존한다. 디지털 프린트된 과거 사건의 사진은 픽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해체해보면 모두 하나의 점일 것이다. 사진을 주변으로 섬세히 지나간 붓질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는 클리셰적인 말을 지킬 듯 말 듯, 선이기에도, 면이기에는 여전히 열기설기한 작가가 그려낸 개체들은 오늘날 개개인의 인 지적 사회와 실질적 사회 간의 관계도이기도 하다.



임장순, 1989년 4월 22일 (서울서 1시간 거리..), 162.3x130cm, 한지에 연필, 먹, 디지털 프린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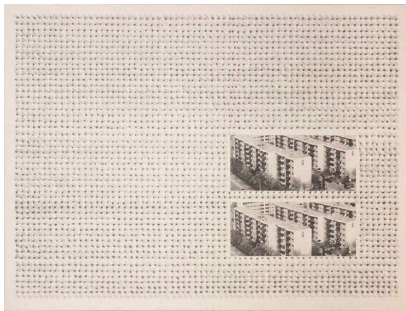
집단이 언제나 밀접한 개인들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이 섞여야만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역사 속에 맥락을 이루며 산재해야 할 필요도 없다. 화폭이 역할하는 시간이란 포괄적 프레임 안에 형체들을 배치하고 그려나가며 작가는 모두 공통된 분모를 가진 기호로서의 실질적, 상징적인 존재들이 조용히 독립적인 동시에 느슨히 연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포용한다. 작가는 이러한 태도로 지나간 시간을 소환해 시제를 역으로 차용해보며 역사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재구성한 시간의 풍경을 그려보며 현 시점의 작가의 세계와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글 조정민 / 화이트노이즈 운영 및 독립기획자



2018년 3월, 서울 방배동의 지하에서 시작된 화이트노이즈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교류를 위한 장소로 출발하였다. 주류와 비주류, 영리와 비영리, 미술과 비미술 등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법으로 국내외의 아티스트와 그 현장을 주목하고 탐구하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이트노이즈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유동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방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아티스트 풀(pool)을 제공하고 있다.

작가 임 장 순 Im, Jangsoon b.1978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1996년 9월 24일 46x60cm, 한지에 연필, 먹, 종이에 디지털 프린팅, 2022

임장순은 전통 회화 매체를 통해 현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참조(referencing) 또는 지시(indexing)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한다. 1970, 80년대 개발도상국의 한국 사회를 겪으며 경험했던 작가의 기억을 한지와 먹을 사용한 전통 수묵화에 디지털 프린팅된 사진을 콜라주하는 창작 행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주요개인전으로 <기록/기억>(영은미술관, 2022), <1900년 00월 00일>(서울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휴스턴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특별시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